

반기문 유엔총장 사실상 확정

4차 투표 상임이사국 전원 지지… 단일후보 유력

안보리, 9일 본투표



지난 3차례 예비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던 반 장관은 차기 사무총장 선출의 최대 고비로 평가된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BBC 등 외국 언론은 반 장관이 4차 예비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사실상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보장받았다”고 평가했다.

반 장관은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신뢰와 지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반 장관에게 축하전화를 걸어 “사실상 유엔 사무총장에 확정적으로 다가선 것은 한국의 외교 역량을 얘기해주는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변수가 남아 있지만 만약 반 장관이 새 사무총장으로

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인도의 샤시 타부르 후보는 찬성 10, 반대 3, 기권 2표를 얻었으나 반대에 상임이사국이 포함되자 개표 후 전례 후보직 사퇴를 선언, 반 장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가도에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졌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9일 사무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투표를 실시한다. 차기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투표를 통해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최소 9개국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가 이를 주인하는 형태로 선출된다.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의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나며 차기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이다.

/정호석기자 who@kwangju.co.kr

“헤쳐모여식 정계개편 불가피”

“민주개혁세력 내년 상반기 신당 창당 바람직”

광주일보,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설문조사

광주·전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계개편 방식은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내년 상반기 안에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광주일보가 주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19명(해남·진도 공석)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계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

대 다수인 16명이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민주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정계개편의 이유로 든 것은 반한 정서가 강한 광주·전남 지역 여론에 따른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강기정, 서갑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정계개

편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여당 상황으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 김효석, 열린우리당 유효근 김성곤 의원 등은 새로운 정치질서 및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계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개혁세력 대통합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정계개편과 분당 주도 세력 배제 등을 주장한 반면, 강기정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이 정계개편에 반영돼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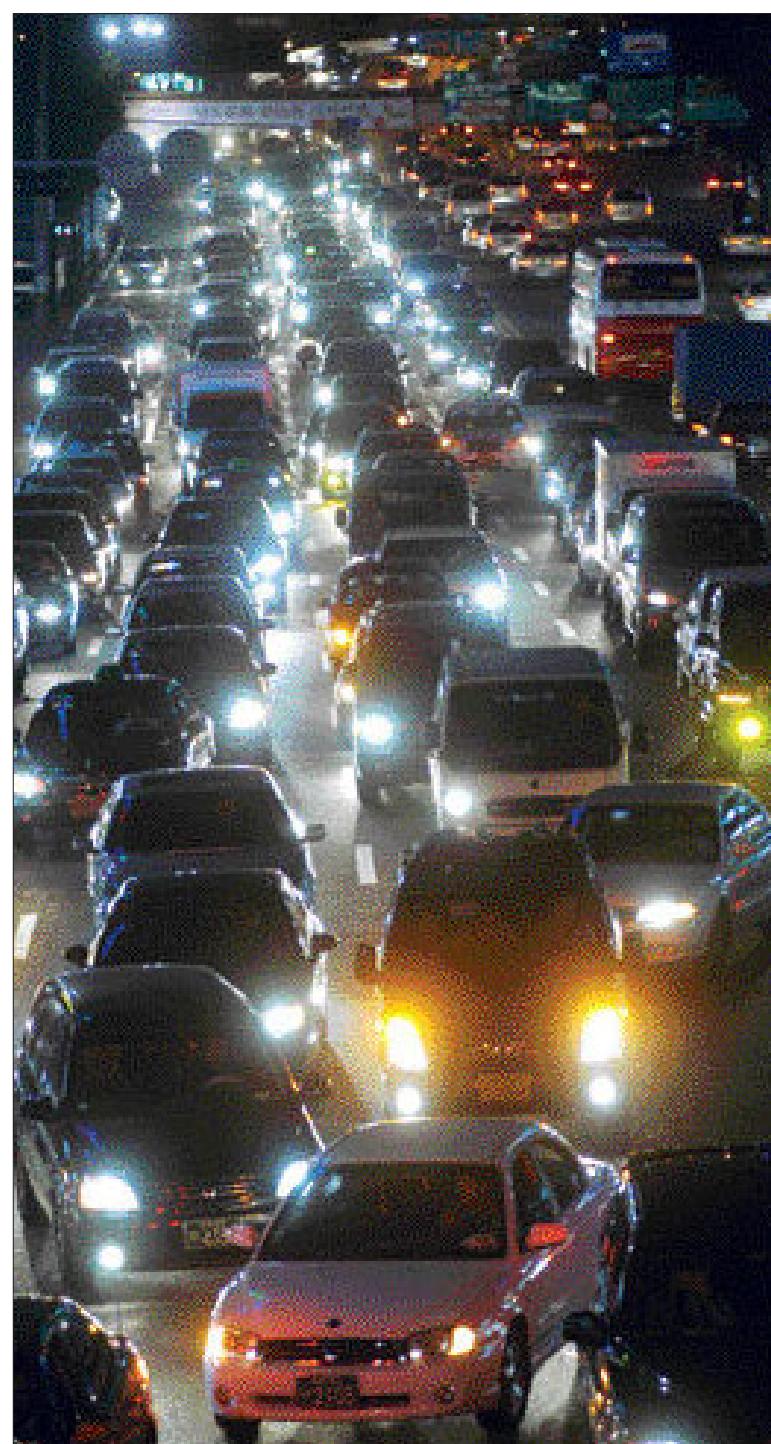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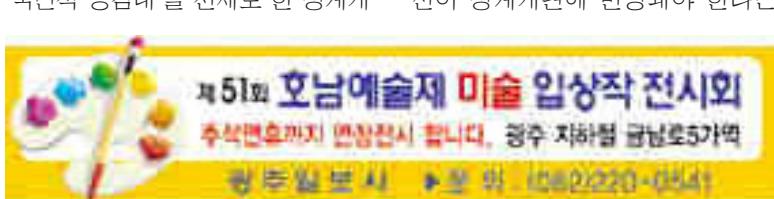
의견을 보여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계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정계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 안에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대선 구도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남 민심이 사실상 정계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10·25 재보궐 선거 이후 정계개편 논의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과 10·25 재보선에 비친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일 오후 들어 구성 차량이 몰리면서 서광주IC에서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문화 예술회관 앞에 이르는 왕복 8차선 도로가 밤늦은 시각까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추석 연휴 광주·전남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구름많음 14 / 26°C	구름많음 14 / 25°C	구름많음 14 / 24°C	구름조금 13 / 25°C	구름조금 13 / 25°C

(자료: 기상청)

즐거운 한가위 맞으십시오

5·6·7일 신문 쉽니다
영화·TV가이드 B1~8면 별지 발행
kwangju.co.kr 서비스는 계속

5천여만명

한가위 대이동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개천절이자 사설상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 3일, 5천만 한민족의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해 연휴 기간이 길게는 9일이나 돼 귀성객 상당수가 분산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지체 현상이 벌어졌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3일 하루 동안 광주를 찾은 귀성 차량은 9만2천대였으며, 서울~광주간 소요시간은 대부분 4시간 전후였으나 이날 오후 6시부터는 30분 이상 더 소요됐다. /채희종기자 chae@



문화가 생활이 됩니다

미래가 미래가 됩니다

대한민국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